

종합·해설

■ 광주 온 새누리 대권주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골리앗 박근혜와 싸움 자신있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인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갈등과 분열의 정치구도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를 찾은 임 전 실장은 “정치혁명을 통해 역차별의 희생이 아닌 광주·전남의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광주·전남지역민의 지지 호소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결을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시대정신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통령 출마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40년 동안 되풀이된 지역갈등과 분열의 정치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출마하기로 했다. 특히 30여 년간 정치권과 공직에 있으면서 정치와 정부가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복되고 있는 구태연한 정치구도를 깨뜨리고 싶다.

▲대통령 출마 결심을 밝힌 뒤 벌써 두 차례 광주·전남을 찾았다. 특히 첫 대선 여정을 광주에서 출발하는데 그 배경은.

▲호남은 우리나라 정치의 한 축이고, 민주화



역사와 정치를 시작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와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하지만, 시대정신의 큰 흐름이 나에게 있는 만큼 시대정신이 겹으로 드러나는 시점에 큰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MB정부 핵심에서 일했다. MB정부의 공과는 무엇이 있다.

▲현 정부가 모두 다 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비판받을 일은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정치대립 구도에서의 평가가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받길 바란다.

사실 MB정부는 일로 승부를 내겠다고 출발했다. 그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잘 들어안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고쳐야 한다고 본다.

반면, 현 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부분도 있다. 그것은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한 공정과 자율의 큰 기둥을 세웠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다.

-MB정부의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 임기 중 호남인사 확대와 공약 이행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 실제 비서실장 부임 당시 광주·전남출신 청와대 비서관이

한 명도 없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후 각 부처에서 업무에 정령이 나 있는 호남 인사를 청와대로 모셨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인사에서 소외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김대중 정부 시절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던 금융구조조정을 담당했다. 공무원은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것이 내 판단이다.

-통합진보당 사태와 이에 따른 ‘문제의원 방지법’을 제안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통합진보당 뿐 아니라 여야 모두 공분을 사고 있는 의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서민의 이름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응답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더 이상 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문제 의원을 퇴출시키자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편중 인사 개선 안돼 아쉬움

MB정권 호남 홀대 지적

지역갈등·분열정치 꼭 깰 것

밝혔었다. 개헌 방향은?

▲지금 국회는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책임은 없다. 과거와 비교해볼 때 매우 불공정하다. 특히 권력구조 문제와 대통령 임기 문제, 선거의 해가 매년 소모적으로 반복되면서 개헌 논의가 시작됐다고 본다. 또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도 개헌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국가적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헌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많은 국민이 헌법에 대해 토의를 하고, 합의가 이뤄내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탈당파 복당’ 구체화

시·도당 대상 복당 여부 타진...기존 지역위 반발 진동 예상

민주통합당이 4·11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당원들을 전당대회 이후 복당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탈당’ 당원들의 복당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당 외부 인사와 탈당파들과의 접촉선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전열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지역위원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을 보여 진동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지역위원회, 탈당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탈당 당원들의 복당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지역인선사 사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

의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 4·11 총선과정에서 탈당했던 인사들에 대한 복당조치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구체적인 복당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에서는 당의 무공전방을 가운뎃 민주당이 전열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지역위원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을 보여 진동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탈당 당원들의 복당을 추진하는 것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조직 재정비와 외연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안철수 교수 등 당 외부세력과 탈당파의 사전접촉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한 사전 차단으로도 해석된

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재 당헌·당규상 탈당 당원이 복당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은 거쳐 도록 돼 있다.

따라서 총선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기존 지역위원회나 당원들도 조급한 복당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통합당 광주지역 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19대 국회가 개헌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복당을 논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탈당파 복당이 순바다 뒤집듯이 이뤄진다면 공당으로서 조직체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도 누가 당 공천받침에 순응하겠느냐”고 반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통합진보 이석기·김재연 제명 추진

강기갑 “초법적 발상”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등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를 19대 국회에서 제명시키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에 공개 제의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의 일부 당선자들은 부정하고 불법적으로 당선자 신분을 차지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의원 자격을 결의하는 제명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민주당이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활동하

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19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논문 표절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한 문대성 당선자와 제수씨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에 대한 제명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실한 요건을 갖는다면 다같이 거론할 수 있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면 처리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검증하고 심판하는 헌법기관인데 규범조차 의심스러운 새로운 종족과 제명절차를 만들려는 저의가 우습고, 국민이 용납할까 의심스럽다”며 “우편향 사상도 검증 대상에 넣는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를 높이 찬양한 박근혜 의원도 제명대상”이라고 역공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어제 봉하마을에서 만났을 때 ‘가능한지 검토해봤지만 어렵다’고 말했다”며 “우리 당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제명 추진은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지탄을 틔운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심각한 통합진보

2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노건평씨 오늘 불구속 기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 비리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는 노 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노 씨는 24일 밝혔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제기된 노 씨 주변 ‘몽치돈’ 의혹과 관련, 이날 김해지역 사업가 박모 씨 형제에 대해 출구금지 조치를 하고 두 사람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통, 대인동 소영사건내편)

매매 교환 전문 빌딩, 모텔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골포장 및 예식장을 금매매로 찾습니다.

매수 매도 대가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 전라남도 일원의 부가가치가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물건(경매,공매)들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취향껏 정리해 드릴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통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푼 쟁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투나,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 및 사무나 (매매)

지역: 북구 삼각동 (사무나 현 상업중) 면적: 대지 약900평, 건물: 2500평

지역: 칠단지구 월계동 (무인텔 금매매) 면적: 대지: 338평, 건물: 440평 객실: 22실

지역: 광천터미널 부근 모텔하우스(사무기) 면적: 대지: 약1000평, 건물: 2803평

지역: 봉선동 대지 314평 매매

지역: 수원지구 롯데마트근처

별당상가 매매 및 분양 중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 적합

지역: 담양 1만평~2만평이상 5만평~10만평

지역: 장성 1만평~5만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

오피스텔 매매

▶총 합계: 보증금 8,250만원 월세 1,425만원

▶지하해운드전시장 1

▶사무실 1, 10평 27.11평 67제, 13평 4

▶토지면적: 509.09㎡(154P)

▶건축면적: 1375.21㎡(416P)

▶매매가 12억 8천만원에서 대출금 5억원과 보증금 8,250만원을 공제하면 실투자금 6억9천7백오십만원으로 월세 1,425만원에서 대출금이자 6% 250만원을 공제하면 월수익 1,175만원으로 연투자수익 20%로 아주 우수한 투자입니다.

문의: 011-684-3886

상가/원룸 매매

▶총 합계: 보증금 4,500만원 월세 779만원

▶1층 편의점 원룸 21개, 투룸 4개

▶토지면적: 330.58㎡(100P)

▶건축면적: 737.19㎡(223P)

▶매매가 7억4천만 (용자 2억4천4백 포함)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8백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4억9천 원수익 678만원 연수익을 18%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011-684-3886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상담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

▶경매비 배유면서 수익 내실분

▶입찰반 / 회비 550만원(4명 한)

▶이론반 / 회비 55만원(24명 한)

▶특수물건만 취급

수료증 단독 / 공동투자가능

투자자 모집

▶경매 물건중 특수물건만 투자

▶근저당 1순위 설정 / 가등기

▶최고년 100% 수익률

매수 입찰대리 법원인가

부자채권!! IMF때 대박났던 부실채권 다시 인기!!

부실채권(NPL)

다와옥션 호남유일의 정통 NPL교육 제1기 NPL 실전투자과정

교육과정	NPL전망및이해 NPL투자의3방식 투자자유입및수익분석	NPL거래구조및경매 투자자배당및수익분석 NPL매입과가격협상방법
	NPL부동산확보및투자분석	NPL실전사례및부동산추천

접수기간	2012년5월29일~6월5일
교육기간	2012년6월05일~7월24일
강의시간	매주화요일(주간10시~1시),(야간7시~10시)

!! 국내 유명교수 초빙특강(이영준 교수, 이현준 교수) !!

* 『한국NPL경제연구소』소장,부소장* 태인경매NPL실전투자교수
* 법무법인『바른길』자산관리팀장* 법무법인『덕양』자산관리팀장
* 『부실채권(NPL)』과함께하는경매이야기』저자직강

무료 공개강좌

일시: 5월31일(목)오전10시~12시,야간7시~9시
6월01일(금)오전10시~12시,야간7시~9시
6월02일(토)오전10시~12시

접수: 전화예약(062)352-8589/선착순40명

Dawa (주)다와옥션 ☎ (062)352-8589(대)

『법원경매』의 집합이! www.dawauction.co.kr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